

'돌부처' 오승환 완벽투... 시즌 6호 홀드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전서
7회말 등판 1⅓이닝 2K 무실점
토론토, 5-3으로 승리 거둬



오승환(토론토)이 2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뱅크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완벽투를 선보였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돌부처'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완벽투를 선보이면서 시즌 6호 홀드를 수확했다. 28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뱅크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경기에서 7회말 등판, 1⅓이닝을 삼진 2개를 곁들여 무실점으로 막았다.

20일 오를랜드 애슬레틱스전부터 이날까지 4경기 연속 무실점 투구를 한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35에서 2.22로 내려갔다.

토론토가 4-3으로 앞선 7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선발 J.A. 헵의 뒤를 이어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라이스 호스킨스를 투수 앞 땅볼을 잡고 이닝을 깔끔하게 끝냈다.

8회말에도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마이클 프랑코를 투김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투심 패스트볼과 포심 패스트볼로 투스트라이크를 잡은 오승환은 볼카운트 2BBS에서 첫 패스트볼을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었다.

후속타자 카를로스 산타나를 유격수 뜬 공으로 잡은 오승환은 애런 알테르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오승환은 볼카운트 2BBS에서 시속 92.5마일(약 148.8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던져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토론토가 9회초 추가점을 내 5-3으로 앞선 9회말 오승환은 마운드를 라이언 테페

리에 넘겼다. 이날 오승환의 투구수는 15개에 불과했고, 그 중 10개가 스트라이크였다. 최고 구속은 시속 93.3마일(약 150.1km)을 찍었다. 토론토는 필라델피아를 5-3으로 꺾었다. 전날 패배를 설욕한 토론토는 25승째(28

패)를 올렸다. 2회초 1사 2, 3루에서 터진 드본 트래비스의 2타점 적시 2루타로 리드를 잡은 토론토는 6회 2사 만루에서 드와이트 스미스 주니어가 2루타를 때려내 2점을 추가했다. 토론토는 6회말 안타 4개와 실책 등으로

3점을 내주며 쫓겼다. 오승환의 호투로 필라델피아의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토론토는 9회 커티스 그랜더슨이 우월 솔로포를 작렬해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뉴시스

김인경, 볼빅 챔피언십 2위... 이민지 통산 4승

(LPGA)

김인경(30·한화큐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승을 아쉽게 놓쳤다.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건주 앤아버의 트래비스 포인트 컨트리클럽(파 72·6734야드)에서 열린 볼빅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쳤다.

최종 15언더파 273타를 적어낸 김인경은 호주동포 이민지(22·하나금융그룹)에게 1타 뒤져 준우승에 만족했다.

김인경은 LPGA 투어 통산 7승을 차지한 베테랑이다. 올 시즌에는 지난 3월 KIA 클래식(공동 4위)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 준우승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9개홀에서 1타를 줄이는데 그친 김인경은 후반 들어 힘을 냈다. 10번과 11번

홀 연속 버디로 순위를 끌어올리더니 13번과 14번홀에서도 버디에 성공, 본격적인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이민지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이민지와 김인경은 17번홀까지 동타를 이뤘지만, 이민지가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낚아 승부를 갈랐다.

이민지는 자신의 22번째 생일에 통산 4승째를 수확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지은희(32·한화큐셀)는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 공동 10위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3라운드까지 공동 6위였던 김세영(25·미래에셋)은 2오버파의 부진 속에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24위에 그쳤다. /뉴시스



이민지



'내 탓이오... 두 골 헌납 너무 미안'

기름손 카리우스, UEFA 챔피언스리그
1-3 패배 관련 SNS서 팬·동료에게

'기름손' 리버풀 골키퍼 로리스 카리우스(24·독일)가 SNS를 통해 팬과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28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장면들이 내 머릿 속에 계속 떠돌고 있다. 팀 동료, 팬, 스태프에게 너무 미안하다. 두 차례 실수로 당신들을 실망시켰다"고 전했다.

또 다른 트위터에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모든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매우 안 좋았다"고 썼다.

"팬들은 우리가 패한 뒤에 변함 없는 성원을 보여줬다"면서 "우리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카리우스는 전날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두 차례 결정적인 실수로 골을 헌납했다. 리버풀은 이날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1-3으로 패했다.

카리우스는 후반 6분 동료에게 볼을 건네주려다 그의 앞에서 있던 카림 벤제마에게 공을 빼앗겼다. 카리우스가 던진 공은 벤제마가 내뻗은 발을 맞고 그대로 골대 안으로 흘러 들어갔다.

후반 44분에도 개러스 베일에게 쇄기골을 허용했다. 베일이 시도한 중거리슛은 골대 중앙으로 날아왔지만 카리우스는 공을 제대로 쳐내지 못해 허망하게 실점했다. /뉴시스

고창 영선중 차아리, 소년체전 유도 금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중 유도경기에서 고창 영선중 차아리(3학년) 선수가 여자부 -57kg급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차아리 선수는 올해 2018 순천만국가정원컵 유도대회 -57kg 1위, 2018 춘계 초·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57kg 2위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여자 유도를 이끌어갈 꿈나무로 평가받고 있다.

영선중 유도부 관계자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과 꿈나무 체육지원사업 등 전라북도와 고창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고창 영선중(교장 이윤교) 유도부는 1988년 창단 후 해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등 명실상부한 유도명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